

운할소식

협회, 폐유회수처리증을 '96. 9. 1부터 폐지

'90년도부터 자동차 엔진오일, 기어오일의 폐유회수를 위탁처리하여 정제연료유를 만들어 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산업체에 연료로 공급함으로써 환경도 보호하고 폐기물도 재활용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협회는 그간 경정비, 세차, 운수등 폐유발생업소에서 폐유를 회수하여 오면서 그에 상당한 폐유회수처리증을 함께 받아왔으나 여러가지 폐단이 있어 '96. 9. 1부터 폐유회수처리증을 폐지하였다.

앞으로 폐유발생업소에서는 폐유회수처리증 없이 잘보관된 폐유만을 협회와 위탁계약한 회수업자에게 인계하면 된다.

- 전문회수처리업체 -

(주)동성산업, 삼성정유(주), 성림유화(주), 대호석유(주), 일신정유(주), (주)동남정유, (주)대우정유, (주)대우환경산업, (주)인창, 신성정유(주), 대성유상, 삼이정유(주), 부국산업, 삼화정유, (주)미성산업, 대한정유산업(주), (주)세경, (주)신호상사, (주)세일정유.

(주)유공 차세대급 가솔린엔진유 개발 성공

(주)유공(대표 : 조규향)은 최근, 올해 10월 15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효될 차세대급 가솔린 엔진용 윤활유 성능 등급인 APISJ/ILSAC GF-II를 만족하는 제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현재 최고등급은 API SH/ILSAC GF-I 임)

유공 대덕기술원 윤활유 연구실이 지난 '95년 4월부터 4억원을 들여 연구에 착수, '96년 5월 제품 개발을 완료한 신제품은 유

공이 독자 생산하는 초고점도지수 기유(VHVI)인 'YUBASE'가 적용됨으로써 탁월한 산화안정성, 적은 오일 소모 등의 특성을 지니는 것외에 금번 개발시 배기가스 여과 장치인 삼원촉매장치의 촉매독이 되는 P(인)함량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배기가스를 저감시키는 '환경친화형제품'으로 손색없는 제품이다. ILSAC의 인증 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규격화된 연비시험(SEQ. VIA)을 통과해야 하며, 인 함유량 0.10%이하(기존 0.12%)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작년 10월 국내 최초로 초고점도지수 윤활기유를 독자 개발, 이를 사용한 윤활유 신제품 『지크』를 출시했던 유공은 이번 개발로 국내 윤활유 제조기술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주)유공 제5석유정제시설(No.5CDU)완공

(주)유공(대표 : 조규향)은 '94년 4월부터 총 4,510억원을 투자해 하루 20만바렐의 정제 능력을 갖춘 제5석유정제시설(Crude Distillation Unit)을 완공, 10월중순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갔다. 울산complex내 1만평 부지에 건설한 석유정제시설은 하루 ▲20만바렐의 상압정제시설 ▲5만바렐 규모의 등·경유 수첨탈황시설 ▲100톤 규모의 유황회수시설 등이다.

울산complex는 이 공장이 가동되므로써 기존에 61만바렐이었던 정제 능력이 총 81만바렐로 증가되어 단일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정유 공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등·경유 수첨탈황시설은 초저유황 경유인 0.05경유(유황함량0.05%인경유로 '98년부터

운할소식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함)를 생산,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주)유공 제2중질유 탈황·분해시설(FCC)완공

(주)유공(대표: 조규향)은 8,900억원을 들여 '93년 착공, 2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탈황 일산 6만 바렐, 분해 일산 5만 바렐의 제2중질유 탈황·분해시설(FCC)을 완공하였다.

제2중질유 탈황·분해시설은 하루 6만 바렐의 고유황 벵커C유를 탈황·분해하여 ▲휘발유 유분 약 4만 바렐 ▲저공해 경유 2만 바렐 ▲프로필렌 3천 5백 바렐 등을 만들어 내게 된다.

이에따라 유공의 휘발유 생산량은 현재 5만 바렐에서 약 9만바렐로 증가, 국내 최대 생산업체가 되었다. 특히 휘발유 유분중 알킬레이트(Alkylate)는 국내에서 최초로 생산되는 저공해 유분으로 인체에 유해한 방향족 함량이 전혀 없어 배기가스 공해 저감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공장이 준공됨으로써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왔던 저유황제품 수입 감소는 물론 값싼 중질원유 도입량을 증대시킬 수 있어 연간 약 2,800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설은 8월부터 시운전을 시작해 10월 중순부터 상업 생산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시설 완공으로 유공은 기존 제1중질유 탈황·분해시설을 포함, 중질유 탈황 일산 9만 바렐, 분해 8만 바렐의 국내 최대 고도화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LG-Caltex(주)전주저유소 완공

LG-Caltex정유(주)(대표: 허동수)가 지난 8월 5일부터 본격적인 송유관 연결 저유소를

완공, 출하업무에 들어갔다.

전북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1만평 부지에 건설된 신 전주저유소는 총공사비 120억원을 들여 지난 '94년 11월 착공 이후 1년 8개월만에 완공되었다.

이 저유소는 휘발유 3만 바렐, 등유 6만 바렐, 경유 9만 5천 바렐, 기타 6천 바렐 등 총 19만 1천 바렐의 석유제품을 저장하며 여천-서울간의 남북 송유관으로부터 10인치 파이프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게 된다.

LG-Caltex정유(주)의 신 전주저유소는 동시에 8대의 유조차량에 제품을 실을 수 있는 4기의 적재대를 갖추고 있으며 탱크 재고는 최첨단 자동계측 장치인 SAAB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저유소의 완공으로 LG-Caltex정유(주)는 전북지역에 군산저유소(15만 바렐 능력), 구 전주저유소(3만 7천 바렐)등 총 37만 8천 바렐의 저장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LG정유판매(주) 인천운할유수송사업소
현판식 거행**

LG정유판매(주)(대표: 조방래) 특판/강원 지역본부는 8월 6일 조방래 사장을 비롯한 관련 임직원 및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단장한 인천운할유수송사업소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원활한 수송이 제품판매에 있어 고객만족의 필수조건임을 재인식하고 업계제일의 수송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할 것을 다짐하였다.

쌍용정유(주)운할유기술세미나 실시

쌍용정유(주)(대표: 김선동) 기술판매부는 자사 운할유를 사용하고 있는 철강업체의 요청

윤활소식

에 따라 설비용 윤활유 공급물량을 증대하고 지속적인 거래 유지를 위해 기술세미나를 실시했다.

지난 7월 24, 25일 양일간에 걸쳐 강원산업, 진영철강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세미나는 「철강설비용 윤활유의 요구 특성 및 윤활관리」에 대한 내용을 기술판매부 최경영 판매1과장의 강의로 진행했다.

쌍용정유(주) 상반기 윤활유진단서비스 실시

쌍용정유(주)(대표: 김선동)는 윤활유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원만한 거래유지와 신규거래처 개발을 위한 기술 서비스의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193개업체, 531건의 윤활제품 시료분석을 실시, 그 결과를 수요처에 제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업체수에서 7.8%, 시료수에서 29.8%가 증가한 결과이다.

현대정유(주) 이색 테마배낭여행 실시

현대정유(주)(대표: 정몽혁)는 올해부터 해외 배낭여행의 자격을 대리급에서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배낭여행의 내용도 테마기행으로 새롭게 개선했다.

특히, 이번 배낭여행은 반드시 혼자서 여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정글탐사나 트레킹, 남극탐험 등의 모험여행과 각국의 민속문화, 영화, 연극, 종교등을 돌아보는 문화기행, 고대문물과 유적지를 답사하는 역사기행, 지역특화산업시찰등 여행중 자신이 경험해보고자 하는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그 테마를 중심으로 여행하는 테마기행이 그 특징이라 할수 있다.

또한 여행기간 동안 최소 3일 정도는 민박을 이용하는 것과 여행시 그 지방에서 가장 큰 시장을 찾아보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두어 현지인

들의 살아 숨쉬는 생활을 직접 체험토록 했으며 각국의 대학가 주변을 탐방하고 그 대학의 도서관 및 학생식당도 이용해 보면서 그 나라 대학문화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소요되는 왕복 항공료를 비롯한 숙박비, 육상교통비 등 여행경비의 대부분은 회사가 지원한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 '96 고급윤활 기술교육 실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이사장: 한호섭)는 윤활유 생산 및 사용업체 기술 임·직원과 각 관련단체, 연구소의 기술담당 임. 직원을 대상으로 「'96고급윤활 기술교육」을 '96. 9. 17~9. 18(2일간)까지 한국종합전시장(KOEX) 4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기술교육은 각계 윤활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정보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생산현장에서 꼭 필요한 최신 윤활관련 기술등을 보급함으로써, 국내 윤활유 산업의 발전과 품질향상에 기여코자 함이며, 엑손케미칼코리아(주) 강영석 상무의 「윤활유 첨가제와 윤활유 규격, 개발동향」, 한국화학연구소 정근우 박사의 「대체 냉매용 냉동기유의 개발동향」, 수원대학교 강석춘교수의 「사용유의 진단방법과 청정화 대책」, (주)유공대덕기술원 문우식박사의 「엔진오일의 기술동향과 금후 개발전망」이란 주제로 강의하였다.

대호석유(주) 대표자 변경

폐윤활유 회수·처리업체인 대호석유(주)의 대표자가 지난 9월 13일부로 임광선에서 김용신으로 변경되었다.